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 만들어지나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naver.com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의 하나다.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본 개념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지난 11월 18일 과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차 공청회'에서 비즈니스기획연구단 현재호 연구책임자는 추진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현재호 연구책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창조적 환경에서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성장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벨트 내에 선진국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연구소, 기업, 대학 등의 대단위 연구협력이 가능한 아시아의 기초과학 연구거점화 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안의 기본 구상이라고 밝혔다.

현 연구책임자는 그동안 해외 성공사례인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쑤꾸바 연구도시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 도시의 성공사례를 참조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벨트를 과학연구 거점, 신기술사업화의 거점, 지식기반서비스 비즈니스 거점, 교육 및 국제교류 거점,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 등으로



현재호 연구책임자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성하겠다는 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공청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벨트 내에 들어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다. 현 연구책임자는 창조적 지식과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개방적 연구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호 연구책임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제1차 공청

일시 : 2008년 11월 18일(화) 14시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방안 발표 후 마련된 토론회 모습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만km²(60만 평)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50개 연구팀, 2천5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의생명, 융합 등 기초과학분야 대형 집단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연구원 연간 예산 규모는 6천500억 원(2013년 이후)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구팀에는 연간 30억~100억 원의 연구비가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책임자는 1967년 KIST 설립 이후 많은 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됐으나, 선진국 수준의 순수 기초과학전문 연구기관은 부재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며, 국내에도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 막스프랑크연구소, 이화학연구소와 같은 많은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연구시스템과 자율적, 일몰형 연구조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방형 연구시스템과 관련, 연구조직을 연구소, 연구유닛, 융합연구단 등 다양한 연구조직으로 구성해, 필요시 연구조직의 개폐를 단행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가속기 건설 관련 의견 엇갈려

검토 중에 있는 가속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인수위(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제안한 바 있는데, 가속기 투자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연구책임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속기 투자 적정성에 대해) 경영경제, 인문사회, 전기전자, 보건 의료, 원자력 분야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수학, 천문우주 분야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련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NT, BT, IT, GT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업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산업과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신산업벨트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



참석자들이 공청회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다고 말했다. 현 연구책임자는 ‘신산업벨트 생태계’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 환경 및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우수 대학과 대학원을 유치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첨단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을 설치해,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녹색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연구책임자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과학기술 변방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있어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연구책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화가 이루어지면 벨트 내외의 전국 주요 도시를 단 시간 내에 왕복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초원천융합기술 분야의 거점 벨트를 시범 조성한 후에는 광역경제권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화벨트로 벨트 구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4차례에 걸쳐 기획연구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 기획연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는 11월 1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12월 초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은 내

년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민경찬 대표

한편 이날 조성방안 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민경찬 대표는 “이처럼 큰 사업을 하려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 중에 사업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비즈니스를 동일시하는 과학기술의 상업화 문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조화 문제,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체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특히 연구원, 가속기 등의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할 경우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과학기술계 주장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사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의를 얻어내는 일에 관계자 모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금동화 KIST 원장

금동화 KIST 원장은 벨트조성방안과 관련,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라는 용어가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기본목표

난무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운영원칙에 있어서도 개방, 자율이 다 좋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했다. 금 원장은 “외국사례를 (프로답게) 상세하게 벤치마킹해 너무 이것저것 넣지 말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국 문화에 적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세대 백용기 교수

가속기 설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백용기 교수는 “생명공학에 있어 단백질을 연구할 수 있는 가속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내 상황에서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업그레이드된 가속기를 빨리 건설해 BT 등의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속기 수요를 해소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대전대 김선근 교수

대전대 경영학과 김선근 교수는 스위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가 건설되면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본부를 스위스로 이전하고 있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가속기를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이 가속기를 건설할 경우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속기를 건설해야 한다”며 “만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경우 그 비용을 정부에서만 부담하지 말고, 민간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현수 교수

금융, 부동산 문제도 신경써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는데 있어 부동산, 금융지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는 “과거 혁신도시 조성사업 경험에 비추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입지 선정 후 엄청난 규모의 이주, 건축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과 관련된 정확한 추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원장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글로벌 벨트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신공간개념이 도입돼야 하고, 에너지절약형 녹색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며 과감한 주거환경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분권자율화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복 (주)PLA 고문은 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분야만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금융 문제에 소홀한 감이 있다며, 연구원, 가속기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금융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